

대전의 역사와 풍속

The History and Custom of Taejeon

한상수 / 대전대 국문과 교수
by Han Sang-Su

머리말

대전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심이 좋은 고장'으로 통한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순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는 120만명으로 그 중 4분의 1이 충청도 사람이고 나머지는 경상도, 전라도, 이북출신이 각각 4분의 1씩이다. 그래서 대전의 발전(田)자가 이를 의미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대전의 옛 이름이 '한(큰)밭'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팔도 사람을 다 포용하는 곳이란 뜻이 들어 있다고 한다.

어쨌든 대전에는 충청도 사람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4분의 3이나 되는 외지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과 동화되어서 마음씨가 순후하고 대전을 인심좋은 고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를 빗대서 소주(외지 생산된 것)도 일단 대전시에 들어오면 맛이 순해진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만큼 대전은 인심이 좋은 고장이란 뜻이다. 인심이 좋다는 말은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된다. 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마음이 순후하다는 뜻도 들어 있다. 이처럼 인심 좋은 고장이 된 연원은 자연적인 환경과 인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대전의 역사

대전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흔히 대전은 '철마가 일궈놓은 도시' 또는 '일본인들이 만든 도시', '전통이 없는 신흥도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대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대전은 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물은 없지만 가까운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보면 그들이 금강을 따라 대전을 왕래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물이 나타난 것은 청동기시대(B.C 10세기)로 갑천과 유등천 주변에 있는 둔산동, 괴정동, 탄방동과 사성동 비래동 등지에 있는 고인돌과 석관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뒤 철기시대(B.C 4세기)에는 진잠에 마한 54개 국가 중 하나인 신흥국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 당시 신흥국

은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대전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신흥국시대의 유물은 진잠과 기성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백제시대 대전지방은 진잠에 진현현, 회덕에 우술군, 유성에 노사지현, 덕진에 소비포현이 설치되어 행정을 관할하여 왔다. 특히 대전지방은 신라와 국경을 접한 요새였을 뿐 아니라 국방의 뒷받침이 되는 군수산업이 발전되고 성곽의 축조, 건물의 건축, 병기의 제작 등 건축기술과 공작기술이 크게 발전했던 곳으로 전하여 오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 와서도 백제시대와 같이 군현의 경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명은 진현현을 진령현, 우술군을 비풍군, 노사지현을 유성현, 소비포현을 적오현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시대 대전지방의 행정구역은 양광도의 청주목에 속했던 공주군 회덕현 유성현 진잠현의 일부지역이 지금의 대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고려시대 대전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은 명학소(현재 둔산)에서 일어났던 망이·망이소의 난(명종 6년, 1176)이다. 원래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한 토산물을 만드는 곳으로 천민이 사는 곳이었다. 망이와 망이소는 한때 공주, 예산, 직산을 점령하며 신분해방을 부르짖었으나 민란은 1년 반만에 진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충주에 있다가 선조 35년에 공주로 옮겨왔다. 당시 대전은 공주목, 회덕현, 진잠현 등 3군현에 속해 있었다. 특히 유성은 태조와 태종이 온천욕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대전지방은 이울곡 → 김장생 → 송준길 → 송시열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예학의 요람지이다. 그런 관계로 조선시대의 예절을 가장 잘 지켜온 고장이라고 하겠다.

근대도시 탄생

대전은 조선말기까지 회덕현 진잠현 유성현이 교차하는 한촌에 불과했다. 대전의 도시화는 경부선철도의 부설되면서 발전이 시작되었고 호남선철도의 부설로 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898년 9월 8일 경부선철도 합동조약체결, 1901년 6월 경부선철도 기공식, 1910년 7월 호남선 기공식,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 1913년 10월 호남선 개통으로 인하여 대전이 교통의 요지로 떠올랐다. 한편 철도의 통과로 그 당시 많은 인구가 대전으로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대전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다. 그 중 일본인의 많은 수가 대전에 정착하였는데 그로 인해 과거 전통적인 도시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 또 대전은 서울과 부산, 목포와의 교차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물산이 집결되었다. 이와 비례해서 새로운 사무실, 주택, 창고, 공공건물의 건축이 성행하였는데 대체로 일본식 건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뒤 호남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이 급증하였다. 1904년 일본인이 188명이었는데, 1909년에 2,487명, 1911년에 3,891명으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일본 풍속이 신흥도시 대전에 만연하였다.

1912년 정동 중동 원동에 살던 일본인이 서쪽으로 뺏어나가기 위해 대전교(목척교)를 건설하여 황리토관공장, 대흥동 연와제외공장, 발암리 채석장, 법원 지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였다. 한편 10월에는 대전역에서 공주 도청을 잇는 도로도 개통시켰다. 그리고 1918년에는 대전-금산간 도로도 준공하였다.

일본인들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심상소학교(1906), 경성중학교 대전분교실(1917, 대전중 전신), 공립실과고등학교(1919, 대전여중 전신)를 설치하였다. 한국인 학교로는 1911년 대전공립보통학교(현 삼성초등학교)를 개교하여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이어서 인동 제사공장(1924), 대전도립병원(1927)도 문을 열었다.

대전이 오늘날 6대 도시로 성장하게 된 기폭제는 공주에 있던 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30년 1월 조선 총독 사이토는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공주 사람들의 반발이 극렬했다. 총독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강에 514m가 되는 금강철교 공사를 해 주고, 1932년 5월 30일 도청 공사를 완공한 다음, 6월에 대전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대전은 근대도시로서 부족함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한편 대전군은 대전부로 승격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대전은 태극기의 물결을 이룬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였다. 감격에 찬 도시였다. 희망에 부푼 모습이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하여 대전은 황폐화되고 말았다. 대전전투가 치열했지만 그보다 미공군의 폭격으로 대전은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형체가 남아있는 것은 충남도청과 대전시청(현 상공회관), 대전지방법원 외에 민가 몇 채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건축한 대전역사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식 건축물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로 대전은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남하했던 주민들이 귀향하여 인구가 급증하는 한편 판자집 시대가 10여년간 계속되었다. 피난민들은 대동, 용운동 산등성이를 비롯하여 용두동, 중촌동, 가오동 등지에 주로 피난민촌을 형성하여 판자집을 짓고 살았다.

5·16군사혁명 후 새마을운동 전개는 대전시 도시계획을 재편하면서 도로망을 새로 구축했고 판자집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뒤 70년대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농촌인구 도시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전은 대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전입인구와 유동인구가 급증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대전에는 현대적인 건물이 늘어나서 미관상으로 쾌적한 도시의 인상을 타지인들에게 남겨 주었다.

대전이 현대적인 도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둔산지구 개발이라고 하겠다. 이는 대전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대전이 국제적인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였다고 하겠다. 엑스포로 인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경제·문화적으로 많은 소득을 안겨 주었다. 또 최근에 완공된 정부청사는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뿐 아니라 대전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대전의 풍속

대전은 동쪽으로 식장산, 서쪽으로 계룡산 지맥인 구봉산, 남쪽으로 만인산, 북쪽으로 계족산이 자리잡고 있는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에는 만인산에서 발원한 대전천과 대둔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유등천과 계룡산 지맥에서 흘러 내려오는 갑천이 합하여 금강에 합류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대전 사람을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질을 갖게 한 것 같다. 거기다가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유교적인 영향은 이 지방의 풍속을 조금은 정적이고 점잖은 문화로 승화시켰는지도 모른다. 대전은 이처럼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이 어우러져 모든 풍속이 소박하고 점잖은 문화로 귀결된다.

생활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절을 중시한다. 체면을 늘 염두에 둔다. 의젓한 양반의 예의범절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전의 풍속이다. 이런 것은 주거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25전쟁 전까지 대전의 건물은 크게 3등분되는데, 그 하나는 대형건물로 된 공공건물류, 다른 하나는 일본식 건물류,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우리 건물류라 하겠다. 전통적인 가옥은 이따금 격조 높은 기와집도 있고 팔칸짜리 초가집도 있었지만 대개가 초가 삼칸집이었다. 마당이 넓으면 좋고 대문이 있으면 더 좋지만 우리 조상들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조촐하고 소박하다.

이사동에 가면 기와집촌을 볼 수 있지만 특별하게 큰 집이 없다. 은진송씨의 점잖은 주택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 거유했던 송준길의 집 동춘당이나 당시 정기를 한손에 잡았던 송시열이 한거하던 남간정사에 가 보아도 마찬가지다. 당대에 '우암' 하면 땀땀대던 인물이지만 남간정사는 그저 소박하다. 이 고장을 대표하는 위인들의 삶이 이러니 서민들은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의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전사람들은 실용적인 측면에 옷을 입었을 뿐 옷 맵시 같은 것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고장의 국문학자 지현영씨도 대전 사람들은 예로부터 멋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특히 옷을 잘 입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실 여인들의 옷매무새를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서울 여인들처럼 사치스러움이 없고, 전라도 여인들처럼 멋스러움도 없고, 경상도 여인들처럼 때깔도 없다. 그저 수수하게 차려 입는 것이 대전 여인들이었다. 물론 현재는 다르지만 한복을 입는 명절 때 같으면 아직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대전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식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촐한 것이 대전사람들의 밥상이다. 그것은 잔치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려한 잔치상보다도 이웃 사람들과 케를 같이 하는 조촐한 것이 대전의 잔치상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대전사람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민속놀이도 마찬가지이다. 서민들이 즐기는 농악놀이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 요란하지 않고 유별나지도 않으며 어떤 면에서 예의 바르고 의젓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지방의 민속놀이는 관원을 골탕먹인다거나 양반을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대전지방은 물론 충남지방까지도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전의 민속놀이는 내용이 조촐하고 소박하다고 하겠다. 그 규모가 크지도 않고 복색이 화려하지도 않다. 놀이의 흐름이 빠르지도 않고 의젓하고 점잖은 데 있다.

인동은 일제시대에 조선인 시장이었다. 일본인들이 중동, 정동, 원동의 상권을 쥐고 있는데 비하여 보잘 것 없었지만 보부상이 모여들고 토산품을 집결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철마다 난장이 서고 아바위꾼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3·1운동 때는 만세도 부르던 곳이다.

인동시장을 물건너 두고 있는 문창동은 옛날부터 남사당패가 놀이판을 벌렸다. 이들이 치던 풍장이 웃다리 농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소박하고 점잖은 풍물이다. 당시에 활동하던 송순갑씨의 말에 의하면 대전의 풍물소리는 점잖은

가운데 흥이 나는 것이라고 한다. 양반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경상도 농악처럼 우렁차지도 않고 전라도 농악처럼 간지럽지도 않다. 풍장을 치는 이나 듣는 이나 체면을 보아가며 흥을 일으키는 그런 풍장놀이가 대전의 농악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조촐하고 소박하고 점잖은 놀이문화는 부사동 칠석놀이나 문창동 옛장수 놀이 그외 모든 놀이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대전의 풍속은 모든 면에 걸쳐서 소박하고 조촐하고 점잖은 마음이 깔려 있다.

맺음말

대전은 역사가 그러했듯이 풍속도 모난 점이 없다. 그것이 충청도 문화를 만들어 왔고 대전문화를 이루어 왔다고 하겠다. 조촐하고 소박하고 점잖은 마음, 이것은 대전의 전통속에 그리고 대전의 문화속에 우리들의 삶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대전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곧 양반문화를 창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삶의 전통이 대전 사람들로 하여금 대전을 인심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대전은 한국의 6대도시지만 큰 사건이 없는 조용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남간정사



동춘당